2021학년도 대학수학능력시험 파이널Ⅱ 제3차 예비평가

대학수학능력시험 파이널Ⅱ 제3차 예비평가 정답 및 해설

※ 이감에서 제공하는 학습 서비스를 받아 보고 싶으시다면, 유튜브에서 '이감TV'를 검색하세요.

• 국어 영역 •

정 답

1	①	2	③	3	③	4	⑤	5	④
6	②	7	①	8	④	9	⑤	10	③
11	②	12	⑤	13	⑤	14	④	15	①
16	①	17	⑤	18	⑤	19	①	20	④
21	⑤	22	①	23	③	24	②	25	④
26	④	27	②	28	②	29	③	30	①
31	③	32	②	33	⑤	34	③	35	④
36	①	37	③	38	⑤	39	④	40	③
41	③	42	①	43	④	44	②	45	④

해 설

[1～3] (화법)

1. [출제의도] 강연자의 말하기 방식에 대해 적절하게 파악할 수 있는가를 묻는 문제이다. (연계 문항 : 수능특강 20쪽)

강연자는 '119에 신고라고 알고～잘못된 지식입니다.'라고 청중의 배경지식이 잘못되었음을 지적하여 청중의 주의를 환기하고 있다.

2. [출제의도] 강연에서 자료가 활용된 방식에 대해 적절하게 파악할 수 있는가를 묻는 문제이다. (연계 문항 : 수능특강 52쪽)

강연자는 불이 났을 때의 대피 요령을 보여 주기 위해 화재를 주변에 알리고 건물 밖이나 옥상으로 대피한 뒤 곧바로 119에 신고하는 대피 과정이 순차적으로 담긴 동영상을 ㉡에 제시하였다.

[오답풀이] ①, ② 강연자는 대피를 최우선적으로 해야 하는 이유를 알려 주기 위해 ㉠에 2016년부터 2018년까지의 화재 발생 및 인명 피해 현황이 나타난 도표를 제시하였다. ⑤ 강연자는 신속한 대피를 위해 미리 피난 경로를 파악해 둘 때 참고할 것을 알려 주기 위해 ㉢에 피난 안내도의 사진을 제시하였다.

3. [출제의도] 학습 활동지에 나타난 학생의 듣기 활동을 적절하게 파악할 수 있는가를 묻는 문제이다. (연계 문항 : 수능특강 92쪽)

강연자는 불이 났을 때 신속히 대피하기 위해 미리 피난 경로를 파악해 두는 것이 중요하며 이를 위해 자신이 자주 이용하는 건물의 피난 안내도를 평소에 확인해 둘 것을 권유하였다. 따라서 ⓒ는 강연에서 직접적으로 언급되지 않은 내용을 추론한 것이 아니라 강연자가 언급한 내용을 실천할 것을 다짐하고 있는 내용이다.

[4～7] (화법－작문)

4. [출제의도] 토론 참여자의 입론을 쟁점별로 적절하게 파악할 수 있는가를 묻는 문제이다. (연계 문항 : 수능특강 142쪽)

'반대 1'은 입론에서 '모병제로의 전환에서 국민들이 가장 우려하는 것은 주로 저소득층 위주로 입대가 이뤄져 사회적 형평성을 저해하는 문제가 발생한다는 것'이라고 말하고 있다. '국민 다수가 모병제로의 전환을 원치 않아 또 다른 사회 문제가 발생할 것'이라고 말하고 있지 않다.

[오답풀이] ① '찬성 1'은 '모병제로 전환되면 숙련된 직업 군인 위주로 군이 운영되기 때문에 군의 전력이 보다 강화될 수 있'다고 주장하였다. ② '반대 1'은 '모병제로 전환되어 군 인원이 크게 줄면 군 전력이 약화될 수밖에 없'다고 밝혔다. ③ '반대 1'은 '모병제로 전환하면 병사의 수는 줄지만, 인건비 등 병사 1인당 병력 유지비가 늘기 때문에 국방 예산의 증가가 불가피하'다고 주장하면서 ○○ 연구원의 보고서를 근거로 제시하고 있다. ④ '찬성 1'은 징병제하에서 발생하는 '병역 기피, 남녀 갈등, 군 가산점 역차별' 등의 사회 문제를 나열하며 이를 해소할 수 있음을 주장하였다.

5. [출제의도] 토론의 특정 발화에 드러난 말하기 방식을 적절히 파악할 수 있는가를 묻는 문제이다. (연계 문항 : 수능특강 142쪽)

[B]의 반대 신문 과정에서 '찬성 1'은 '모병제로 전환하면서 병사들에게 충분한 보상이 이뤄진다면 병력을 확보할 수 있지 않'겠느냐고 하였다. 이에 대해 '반대 1'은 '그렇지 않습니다.'라고 '찬성 1'이 예측한 내용을 반박하면서, 미국의 사례를 들어 '우리 역시 병력 확보에 어려움을 겪게 될 것'이라며 자신의 주장이 타당함을 강조하고 있다.

6. [출제의도] 토론 중 메모한 내용이 학생의 초고에 적절히 반영되었는지 파악할 수 있는가를 묻는 문제이다.

학생이 작성한 과제 학습장에는 '반대 1'의 입론을 바탕으로 '모병제로 전환하면 병력 유지비가 오히려 상승할 수 있다는 일각의 우려가 존재하고 있음을 언급해야겠'다는 글쓰기 전략이 2문단에 수립되어 있다. 그러나 (나)의 2문단에는 징병제하에서 막대한 비용이 소요되고 있음을 언급하고 있을 뿐, 모병제로 전환했을 때 병력 유지비가 상승할 수 있다는 일각의 우려가 있다는 내용은 언급하고 있지 않다.

7. [출제의도] 조언에 따라 마지막 문단에 들어갈 내용을 적절히 고쳐 쓸 수 있는가를 묻는 문제이다. (연계 문항 : 수능특강 153쪽)

<보기>는 1문단의 첫째 물음에 대한 입장을 드러내라고 하였다. (나)에서 학생은 모병제에 찬성하는 입장이므로 1문단에서 제기한 '현대전에서의 승패가 병사의 숫자에 달려 있는 것일까?'라는 물음에 대해 그렇지 않다는 취지의 응답을 할 것이다. 그리고 1문단에서 제기한 둘째 물음에 대해서는 초고에 서술한 내용을 바탕으로 우리 병역 제도의 바람직한 운영 방식에 대한 학생의 생각을 밝혀 달라고 하였다. 글의 흐름을 볼 때 모병제로의 전환이 바람직하다고 할 것임을 짐작할 수 있다. 따라서 이러한 흐름으로 작성한 ①이 마지막 문단으로 가장 적절한 내용이다.

[8～10] (작문) 연계 지문 : 수능완성 136쪽

8. [출제의도] 초고에 반영된 글쓰기 전략을 파악할 수 있는가를 묻는 문제이다.

글의 주제는 '사용하지 않는 교실을 허문 공간에 학생들의 바람대로 학생 휴게 공간을 조성해야 한다.'이며 이 주장을 강조하기 위해 셋째 문단에 휴게 공간 조성으로 인해 학생들이 얻는 여러 기대 효과를 제시하였다.

9. [출제의도] 초고의 일부분을 보완하기 위해 추가로 수집한 자료를 적절히 활용할 수 있는가를 묻는 문제이다.

㉯를 통해 휴게 공간에 대한 학생들의 요구를 파악하는 것이 가능할 수는 있지만 ㉯에 따르면 이러한 휴게 공간은 '온전히 휴식만을 위한 공간'이어야 함을 알 수 있다. 그러므로 이를 활용해서 '학습과 휴식을 함께할 수 있는 공간을 조성해야 한다'는 내용을 추가하는 것은 적절하지 않다.

[오답풀이] ① ㉮에 따르면 학교 공간의 활용에 대한 학교 측의 결정 사항, 즉 사물함 비치 공간으로 활용하는 것을 원하는 학생은 7％에 불과하다. ④ ㉮에서 우리 학교 학생들의 대부분이 휴게 공간을 원하고 있음을 알 수 있고, ㉯에 따르면 이러한 학생들의 의견을 반영하여 학교 공간을 조성할 경우 학생들에게 학교에 대한 주인 의식을 심어 줄 수 있음을 알 수 있다. 그러므로 ㉮와 ㉯를 활용하여 우리 학교 학생들의 대부분이 원하는 대로 휴게 공간을 조성하면 학교에 대한 학생들의 주인 의식을 기를 수 있다는 점을 추가할 수 있다.

10. [출제의도] 검토 의견을 반영하여 초고의 마지막 문단을 적절히 고쳐 쓸 수 있는가를 묻는 문제이다.

초고의 마지막 문단의 두 번째 문장인 '그렇기 때문에～다양한 공간이 필요하다.'가 삭제되었다. 즉 다양한 학교 공간의 필요성 또는 학생들을 위한 다양한 학교 공간의 종류가 삭제되었다. 그리고 마지막 문장에는 교내 휴게 공간 조성으로 인해 학교가 진정한 '학생을 위한 공간'으로 재탄생한다는, 학교 공간이 갖게 될 의의가 추가되었다.

[11～15] (언어)

11. [출제의도] 중세 국어와 현대 국어 높임법의 차이를 적절하게 파악할 수 있는가를 묻는 문제이다. (연계 문항 : 수능특강 241쪽)

중세 국어의 객체 높임법이 어미에 의해서도 실현되었던 것과 달리, 현대 국어의 객체 높임법은 조사와 특수 어휘에 의해서만 실현된다.

[오답풀이] ④ 현대 국어의 상대 높임법은 네 등급으로 분류되는 반면, 중세 국어의 상대 높임법은 세 등급으로 분류된다. ⑤ 현대 국어의 주체 높임 선어말 어미의 형태는 '－시－'뿐이지만, 중세 국어에서는 '－시－'와 '－샤－'가 있었다.

12. [출제의도] 중세 국어의 높임법에 대해 적절하게 이해할 수 있는가를 묻는 문제이다. (연계 지문 : 수능특강 213쪽)

'아니ᄒᆞ시이다'에서 주체 높임의 선어말 어미 '－시－'와 상대 높임의 선어말 어미 '－이－'가 사용되었음을 확인할 수 있다. 상대 높임의 선어말 어미 '－이－'는 'ᄒᆞ쇼셔체'의 경우에 쓰였다.

[오답풀이] ④ ⓓ의 '노더닝다'에서 'ᄒᆞ야쎠체'의 경우에 쓰였던 상대 높임의 선어말 어미 '－ㅇ/ᄋᆞ－'을 확인할 수 있다. 그러나 ⓓ에서 객체 높임의 선어말 어미는 사용되지 않았다.

13. [출제의도] 한글 맞춤법을 올바르게 이해하고 적용할 수 있는가를 묻는 문제이다. (연계 문항 : 수능완성 194쪽)

'응석받이'는 '응석+받－+－이'로 분석할 수 있다. 끝소리에 원래부터 'ㄹ' 소리가 없으므로 한글 맞춤법 제28항과 제29항이 적용된 사례가 아니다.

[오답풀이] ①, ④ 'ᄑᆞᆫ소(풀+소)'는 '풀'이 '소'와 어울릴 때 '풀'의 끝소리 'ㄹ'이 'ㄷ'으로 소리 나서 'ㄷ'으로 적은 것이며, '사흗날(사흘+날)'은 '사흘'이 '날'과 어울릴 때 '사흘'의 끝소리 'ㄹ'이 'ㄷ'으로 소리 나서 'ㄷ'으로 적은 것이다. 따라서 한글 맞춤법 제29항이 적용된 사례에 해당한다. ②, ③ '바느질(바늘+－질)'은 '바늘'이 '－질'과 어울릴 때 '바늘'의 끝소리 'ㄹ'이 소리 나지 않아서 나지 않는 대로 적은 것이며, '미닫이(밀－+닫－+－이)'는 '밀－'이 '닫－'과 어울릴 때 '밀－'의 끝소리 'ㄹ'이 소리 나지 않아서 나지 않는 대로 적은 것이다. 따라서 한글 맞춤법 제28항이 적용된 사례에 해당한다.

14. [출제의도] 명사화 접미사 '－이'와 부사화 접미사 '－이'의 문법적 성질을 적절하게 이해할 수 있는가를 묻는 문제이다. (연계 문항 : 수능특강 300쪽)

'더욱'은 부사이므로, ⓓ에 들어갈 말은 부사이다.

[오답풀이] ① '먹－'과 '앉－'은 모두 동사 어간이다. ② '높이'는 명사로도, 부사로도 쓰인다. ⑤ '집집이'는 1음절 명사 '집'의 반복 구성인 '집집(집+집)'에 '－이'가 붙어 형성된 말이므로, ⓕ에 들어갈 말은 '명사'이다.

이 콘텐츠에 관한 저작권은 (주)이감에 있습니다.

15. [출제의도] 형태소, 단어, 어절에 대해 올바르게 이해하고 있는가를 묻는 문제이다. (연계 문항 : 수능특강 224쪽)

접사 '-꾼', 어간 '먹-', 어미 '-었-', '-습니다'는 단어의 자격을 지니지 못하는 형태소이므로, ㉡의 자격을 지니지 못하는 ㉠은 다섯 개가 아니라 네 개 있다.

[오답풀이] ② '꽃이'는 명사 '꽃'과 조사 '이'로 구성되므로 단어가 두 개이고, '놀이'는 동사 어근 '놀-'과 접사 '-이'가 결합하여 형성된 파생어이므로 한 단어이다. ③ '야'는 호격 조사이고, '와'는 부사격 조사이다. 조사는 단어의 자격을 지니지만 독자적으로 어절을 구성하지는 못한다. ④ '하다'는 독자적으로 어절을 구성하고 있는 단어이다. ⑤ '예쁘게'는 하나의 어절이면서 두 개의 형태소('예쁘-', '-게')로 구성된 말이다.

[16 ~ 21] (고전시가-수필) 박인로, '누항사' / 이휘일, '저곡전가팔곡' / 채제공, '와룡폭기' (연계 지문 : 수능완성 209쪽, 수능특강 220쪽 / 작가 연계 : 수능특강 198쪽)

16. [출제의도] 작품을 종합적으로 비교하여 이해할 수 있는가를 묻는 문제이다.

(나)의 화자는 가을의 결실에 보람을 느끼는 <제4수>나 하루의 일과에 보람을 느끼는 <제8수>에서 자신의 삶에 대한 만족감을 드러내고, (다)의 글쓴이도 자신의 한가한 전원생활에 만족감을 드러낸다. 이에 반해 (가)에는 농사를 짓고자 했지만 지을 수 없게 되어 생계를 유지할 방법을 찾을 수 없는 가난한 선비의 처지와 그에서 비롯된 비애감이 드러나 있다.

[오답풀이] ③ (가)의 화자가 불확실한 미래에 대해 비관적인 전망을 품고 있다고 보기는 어렵다. 객관적인 시각에서 볼 때 그에게는 현실적인 타개책이 존재하지 않지만, 그는 어떻게든 자신이 선비로서 마땅히 살아야 할 삶을 살 수 있을 것이라 믿는다. (나)에는 절망적인 상황이 나타나지 않으며, 화자가 냉소적인 태도를 취하지도 않는다. ④ (가)의 전반부에서 화자가 슬픔에 잠겨 있기는 하지만, 슬픔에서 헤어나지 못하고 있음을 자책하지는 않는다. (다)의 화자가 회의적인 생각을 품고 있다고 볼 이유도 없다.

17. [출제의도] 시구의 문맥적 의미를 적절하게 이해할 수 있는가를 묻는 문제이다.

화자는 밤새 내린 이슬에 농작물이 얼마나 자랐을까 기대하면서 밭에 나가 보자고 말한다. 잘 자라고 있을 농작물에 대해 흐뭇해하는 심리를 엿볼 수 있다.

[오답풀이] ① 화자는 자신의 처지를 한탄하며 잠을 이루지 못해 날이 밝기를 기다리고 있을 뿐이다. ② '소뷔'는 날이 잘 서 있지만, 그것을 끌 소를 빌리지 못했으니 사용할 수가 없다. 못 써서 아깝다는 것이지, 아까워서 못 쓰는 것이 아니다. ④ 화자는 자신이 키운 곡식을 먹는 삶에 보람을 느끼면서, 세속적인 지위와 권력이 부럽지 않다고 말하고 있다. 부러워해도 얻을 수 없음을 탄식하는 것이 아니라 부러워할 이유가 없다고 말하는 것이다.

18. [출제의도] 외적 준거를 바탕으로 작품을 적절하게 감상할 수 있는가를 묻는 문제이다.

[보기설명] 「누항사」에는 임진왜란 이후 재지 사족(在地士族, 벼슬을 하지 않고 향촌에서 살아가는 선비 계층)이 처한 곤궁한 현실이 여실히 나타나 있다. 지문에 싣지 않은 작품 전반부에는 화자가 먹고살기 위해 농사에 나섰으나 (소를 갖고 있지 않을 뿐 아니라) 소를 빌리는 데 실패하는 상황이 나타난다. 소를 못 빌리고 밤중에 집으로 돌아온 화자는 (지문에 나타나 있듯이) 자신의 신세를 한탄하다가 문득 자신의 오래된 꿈('강호 한 꿈', 즉 자연을 벗 삼아 안빈낙도하는 삶에 대한 소망)을 떠올린다. 주목할 부분은, 이러한 꿈이 현실적이지 않다는 점이다. 화자는 지금 시골 아닌 곳에서 시골의 자연을 꿈꾸는 것이 아니라, 농촌 마을에서 궁핍을 겪고 있으면서 자연을 벗 삼아 안빈낙도하는 삶을 떠올리는 것이다. 현실을 타개할 방법을 찾을 수 없는 상황에서 선비의 이상을 떠올리며 위안을 얻으려 하는 것일 뿐, 화자에게 지금 이곳을 떠나 찾아가야 할 어떤 자연이 있는 것이 아니다. 화자는 '기수의 물가를 바라보니 푸른 대나무가 무성하구나. 빼어난 군자들(대나무를 의인화한 표현)이여. 잘라서 갈고 쪼아 놓은 것처럼 굳세고 빛나며 점잖으니(대나무의 속성에 빗대어 선비가 가져야 할 품성을 나타낸 표현), 빼어난 군자들이여, 끝내 잊을 수 없구나.'라는 『시경』의 구절을 원용하면서 선비로서 마땅히 지녀야 할 자세를 마음에 떠올려 본다. 그러고는 자연에서의 '안빈낙도'라는 이상에 따라 살겠다고 다짐하면서, 앞으로는 구차하게 소를 빌리려 하지 않겠다고 한다. 궁핍에 시달리더라도 남의 것을 부러워하지 않으면서 자신의 운명인 가난을 받아들이고 다만 충효와 형제간의 우애, 친구에 대한 성실함을 지키면서 살겠다는 것이다.

[정답풀이] 생계유지조차 힘든 화자가 충효를 실천하겠다고 다짐하는 것은 맞지만, 자신에게 주어진 운명을 극복하고 그 바깥의 새로운 삶을 개척하겠다고 다짐하는 것은 아니다. 화자는 자신의 가난이 운명이라고(인간 세상의 어느 일이 운명 아닌 것이 있겠느냐고) 그냥 받아들이고 있다.

19. [출제의도] 소재의 의미와 기능을 적절하게 설명할 수 있는가를 묻는 문제이다.

(가)의 '무정한 오디새는 이내 한을 돕는구나'에서 '오디새'가 화자의 안타까움을 심화하고 있음을 확인할 수 있다(참고로, 오디새는 여름 철새로서 그 울음소리는 모내기를 할 시기가 끝나 가고 있음을 나타낸다. 소를 못 빌려 봄갈이를 하지 못하고 있는 화자로서는 그 울음소리를 들으며 안타까움이 심화될 수밖에 없겠다.). (나)에서 '백설'은 울음소리로 새벽을 알리고 있으며, 이 소리에 화자가 주변 사람들을 깨우며 밭에 나가자고 하는 데서 '백설'이 새로운 하루가 시작되는 시간의 청명한 분위기를 환기하고 있음을 짐작할 수 있다.

20. [출제의도] 작품 특정 부분의 표현상 특징을 적절하게 이해할 수 있는가를 묻는 문제이다.

[A]는 달아오른 땅의 뜨거운 느낌을 '불이로다'라는 비유를 통해 나타내고 있다. [B]의 첫 문단은 폭포에서 쏟아져 내리는 물의 인상을 '화살', 그리고 '지붕'에 엎은 '물독'에서 쏟아져 내리는 물에 빗대어 나타내고 있으며, 떨어져 내린 물이 일으키는 물보라의 인상을 '구슬'과 '눈발'에 비유하여 나타내고 있다.

[오답풀이] ③ [A]에는 활유의 기법이 나타나지 않는다. [B]는 '문지방처럼 길을 가로막고 누워 있는 돌'이나 '맹렬하게 두드리는 물'에서 활유의 기법을 찾아볼 수 있으며, 그중 후자는 물살의 생동감을 나타내고 있다고 볼 수 있다.

21. [출제의도] 외부 정보를 참고하여 작품을 적절하게 비교하여 감상할 수 있는가를 묻는 문제이다.

(나)의 '이 중의 즐거운 뜻'은 화자가 하루의 농사일을 마치고, 즉 자신의 본분으로 받아들인 일을 수행하고 돌아오며 느끼는 흥취를 담은 구절이다. (다)의 '잠깐 동안 내가 나를 잊는다'는 정계를 떠나 자연에 은거해 있는 글쓴이가 잠시 무념무상의 상태에 있게 되었다는 뜻일 뿐, 이 말이 자신의 본분을 저버리고 있었다는 데 대한 반성을 담고 있다고 볼 수 없다. 바로 앞의 '마음이 빛나고 빛나서'와 바로 뒤의 '나는 하늘에 노니는 것이'라는 표현에서도 이 무념무상의 순간에 대한 기쁨과 만족감을 짐작할 수 있다.

[오답풀이] ④ '바람 소리'로부터 문무 제신들이 참여하는 대궐의 예식에서 나는 '패옥 소리'를 떠올리는 것은, 작가가 자연에 은거하고 있으면서도 다시 돌아가 국정에 힘쓸 수 있게 되기를 기다리고 있었다는 <보기>의 설명을 참고하면, 나랏일에 대한 생각을 머리에서 지울 수 없었을 작가의 내면을 짐작할 수 있게 한다.

[22 ~ 26] (사회) 연계 지문 : 수능완성 85쪽

22. [출제의도] 지문의 세부 정보들을 적절하게 파악할 수 있는가를 묻는 문제이다.

전체 디자인만을 보호 대상으로 여겼던 시기에 요부가 아닌 다른 부분에 대한 모방으로부터 디자인을 보호하기 힘들었다는 진술로 보아, 요부는 부분 디자인 제도가 도입되기 전에도 전체 디자인을 보호하는 측면에서 보호받을 수 있었다고 볼 수 있다.

[오답풀이] ② 출원인은 자신의 주관에 따라 정한 특정 부분에 대해 출원한다. 주관을 배제한 객관적 기준에 따라 부분 디자인으로 출원할 부분이 정해지는 것은 아니다. ③ 디자인보호법상의 디자인은 물품의 형상, 모양, 색채를 통해, 혹은 이들을 결합한 것으로서 미감을 일으키는 것이다. 즉 특정 형상만을 디자인으로 간주할 수 있다. ④ 특허청에 등록이 되어 있지 않아도 부정경쟁방지법에 의해 물품의 형태가 갖추어진 날로부터 3년간 보호받는다. 특허청 등록은 더 강하게 보호하기 위한 것이다. ⑤ 특허청에 등록된 디자인의 출원인은 물품의 형태가 갖추어진 날이 아니라 등록일로부터 20년간 배타적 권리를 부여받는다.

23. [출제의도] 지문에 소개된 두 대상에 대해 비교하여 이해할 수 있는가를 묻는 문제이다.

'부품'은 실선으로 그려지고, '부분' 역시 실선으로 그려진다. '부분' 디자인 도면에서 '부분'은 실선으로 그려지고 나머지가 파선으로 그려지는 것이다.

[오답풀이] ① '부품'이 본체에서 떼어 낼 수 있는 것인데 반해, '부분'은 파괴하지 않으면 분리할 수 없는 것이다. ② '부품' 디자인의 경우 출원할 때 해당 '부품'만을 그려 제출하지만, '부분' 디자인의 경우 '부분은 실선으로 그리고 나머지는 파선으로 그려서 전체 이미지를 제출해야 한다. ④ '부품'은 '부분'과 달리 통상의 거래 방법으로 따로 거래될 수 있다. ⑤ '부분' 디자인이나 '부품' 디자인은 전체 디자인 출원과는 별도로 출원될 수 있다.

24. [출제의도] 지문을 바탕으로 <보기>의 사례에 대해 적절하게 이해할 수 있는가를 묻는 문제이다.

[보기설명] 공지된 적은 없으나 서로 유사한 물품을 개발한 '갑'과 '을'이 시차를 두고 출원하는 상황이다. 누가 먼저 출원하는지, 전체인지 부분인지, 해당 물품이 언제 공지되는지에 따라 '신규성'이나 '선출원주의', '확대된 선출원주의'의 충족 여부를 이유로 등록 여부가 달라질 수 있다.

[정답풀이] '갑'이 3월 5일에 부분 디자인을 출원했고 그 도면이 6월 5일에 최초로 공지되었다. 부분 디자인 도면이 공지된 만큼 전체 디자인이 공지된 상태와 같다. 이렇게 부분 디자인 도면이 공지되면 전체 디자인은 '신규성' 위반으로 등록되지 못한다. 다만 공지된 물품에 대해 디자인 등록을 받을 권한이 있는 자가 최초 공지된 날로부터 12개월 이내에 출원하는 경우는 예외로 간주된다. 즉 공지된 날을 기준으로 12개월 이내이면 전체 디자인이 등록될 수 있는 것이다. 따라서 '갑'은 다음 해 6월 5일이 지나기 전에 X의 전체 디자인을 출원하여 등록받을 수 있다.

[오답풀이] ① Y의 전체 디자인은 X의 전체 디자인과 유사하다. X의 부분 디자인이 6월 5일에 공지되었으므로, '을'이 6월 6일에 출원한 Y의 전체 디자인은 '신규성' 위반에 해당한다. 부분 디자인 도면이 공지되면 전체가 공지된 것으로 보아야 한다. ③ X가 먼저 개발을 했더라도 '을'이 Y의 전체 디자인을 먼저 출원했다면 X의 부분 디자인은 '선출원주의' 위반에 의해 등록되지 못한다. ④ 선출원된 것이 부분 디자인이더라도 도면에 전체 디자인이 포함되어 있다는 점에서 후출원된 것이 전체 디자인인 경우에 '확대된 선출원주의' 위반에 의해 후출원된 것은 등록되지 못한다. '갑'과 '을'이 동일한 출원인인 것은 아니므로 예외가 적용되지도 않는다. ⑤ '갑'이 3월 5일에 출원한 것이 전체 디자인인 상황이다. 그럴 경우 후출원된 부분 디자인은 등록되지 못한다. '확대된 선출원주의'는 선출원과 후출원의 출원인이 동일한 경우에 적용하지 않지만, '선출원주의'의 경우 그러한 예외가 적용되지 않는다.

이 콘텐츠에 관한 저작권은 (주)이감에 있습니다.

25. [출제의도] <보기>의 학습지를 적절하게 수행할 수 있는가를 묻는 문제이다.

[보기설명] 부분 디자인의 등록 요건 중 '1 디자인 1 출원'을 근거로 등록 여부에 관한 가능한 판단 중의 하나인 것인지를 검토해야 하는 것이 과제이다. 형태적 일체성이 있거나 혹은 기능적 일체성이 있는 경우에 분리된 두 부분을 하나의 디자인으로 간주하여 예외적으로 등록될 수 있다.

[정답풀이] 상부는 토끼의 귀로 인식하고 하부는 토끼의 꼬리로 인식할 경우에 토끼의 형태가 일체감을 준다. 즉 이렇게 관련성 등의 요인에 의해 형태적 일체성이 미감을 일으키는 경우에 예외 규정을 근거로 등록 승인 결정이 내려질 수 있다.

[오답풀이] ① 휴대폰 케이스 부분은 파선으로 그려진 부분이어서 출원한 대상이 아니다. ② 형태적 일체성이 있을 경우 하나의 디자인으로 인정되는 것이지, 각각 개별 디자인으로 인정되는 것이 아니다. ③ 기능적 일체성이 없다면, 그 이유로 부분 디자인이 등록될 수는 없다. ⑤ 형태적 일체성이 있다면 그 이유만으로 등록 승인 결정이 내려질 수 있다. 형태적 일체성과 기능적 일체성 중 하나만 있으면 예외로 인정되는 것이지 두 가지 일체성이 모두 있어야 하는 것은 아니다.

26. [출제의도] 고유어의 문맥상 의미를 파악하여 한자어로 적절하게 바꿔 쓸 수 있는가를 묻는 문제이다.

ⓓ의 '받다'는 '요구, 신청, 질문, 공격, 도전, 신호 따위의 작용을 당하거나 거기에 응하다.'라는 뜻이므로 '남을 대신하여 행하다.'라는 뜻인 ④의 '대행하다'로 바꿔 쓸 수 없다.

[27～32] (과학－예술) 연계 지문 : 수능특강 32쪽, 234쪽

27. [출제의도] 독서 후 활동지 작성과 관련된 항목들을 적절하게 평가할 수 있는가를 묻는 문제이다.

(가)는 비버의 사례, (나)는 붉은색 보디 페인팅 사례 등을 들어 진화에 관해 설명하고 있다. 또한 (가)와 달리 (나)는 예술의 기원에 관해 성 선택에 기초한 카밀라 파워의 견해와 '특별하게 만들기'를 제시하는 디사나야케의 견해를 제시하고 있는데 이 둘은 서로 보완되는 견해라 할 수 있다. (가)에서 도킨스의 이론은 전통적 진화론과 상반되는 것이 아니며 더구나 이들 이론을 절충하고 있지도 않다. 따라서 ⓐ와 ⓑ는 적절하고 ⓒ는 부적절하다.

28. [출제의도] (가)의 세부 정보들을 적절하게 파악할 수 있는가를 묻는 문제이다.

대립 유전자는 대립하는 형질을 발현시키는 두 유전자 중 하나의 유전자만을 담고 있는 것이 아니라, 두 유전자 한 쌍을 담고 있다.

[오답풀이] ① 집단 선택론에 따르면 동물의 이타적 행위는 비슷한 형질을 가진 개체들로 이루어진 집단을 위해 한 개체가 희생한 결과이다. ③ '감수 분열 분리 비틀림'은 특정 유전자가 한쪽 성(性)에서만 우세하게 발현되는 현상이다. 따라서 특정 유전자가 여성에게만 우세하게 발현될 수 있다. ④ 도킨스는 DNA 서열 중 조합이나 경쟁에 의해 다음 세대에 다른 서열로 대체될 수 있는 DNA 단편만을 진정한 의미의 유전자라 불렀다. ⑤ 도킨스에 따르면 자식을 위한 어미의 희생은 많은 부분에서 유전자를 공유하는 자식을 보호함으로써, 해당 유전자가 널리 퍼져 나가도록 하기 위한 것이다.

29. [출제의도] (가)에 언급된 정보들을 토대로 빈칸을 적절하게 채울 수 있는가를 묻는 문제이다.

도킨스는 다윈의 자연 선택설을 받아들였지만, 자연 선택의 단위가 개체가 아니라 유전자라는 관점을 취함으로써 설명을 달리한다. 그는 개체의 생존에 유리한 형질을 발현하는 유전자들이 아니라, 자신의 확산에 유리한 형질을 발현하는 유전자들이 퍼져 나가기 쉽다는 점을 강조했다. 실제로 이타적 성향은 생존에 유리한 형질이 아니지만 확산되는 경우가 있다. 어떤 이타적 성향은 확산되기에 유리한 형질일 수 있는 것이다. 또한 도킨스는 자신의 입장이 유전자 결정론이라는 비판에 대해, 확장된 표현형은 환경에 따라 모습이 변할 뿐 아니라 특정 유전자의 복제 확률을 높이기 때문에, 모든 것이 유전자에 의해 결정되는 것만은 아니라고 반박했다. 주어진 환경의 영향도 받고, 확장된 표현형처럼 유전자가 발현된 형질이 아닌 것에도 영향을 받으므로 유전자 결정론이라 할 수 없다는 것이다.

30. [출제의도] (나)의 특정 대상에 대한 인물들의 견해를 적절하게 비교할 수 있는가를 묻는 문제이다.

파워는 '장식'이 개체의 생존에 유리하지 않으나 번식을 위한 구애 전략에는 유리한 것으로 보는 반면, 디사나야케는 '장식'이 '특별하게 만들기'의 한 방식으로 생존을 강화시켜 주는 것으로 본다.

[오답풀이] ② 파워는 '장식'을 개체의 생존 가능성을 높이는 기술로 보지 않는다. 디사나야케는 '장식'이 사냥의 성공 확률을 높여 집단의 생존을 강화하는 기술일 수 있다고 본다. ③ 파워에 따르면 '장식'은 구애 전략의 일환이지만 생물학적 형질이 아니라 문화적, 예술적인 것이다. 디사나야케는 '장식'이 사냥 전 동물의 피를 발라 정서적 안정을 도모하는 것과 같은 제의와 연관된 것으로 본다. ④ 파워는 '장식'이 성 선택을 돕는 것이라 보고, 디사나야케는 '장식'이 자연과 조화를 이루려는 산물이라고 본다. ⑤ 파워와 디사나야케는 모두 '장식'과 같은 것이 예술의 기원일 수 있다고 본다.

31. [출제의도] (가)와 (나)를 토대로 특정 사례에 적절하게 반응할 수 있는가를 묻는 문제이다.

[보기설명] 원시 인류의 도구 사용과 두뇌의 진화에 대한 가설이 제시되어 있다. 도킨스의 관점에 의하면, 원시 인류가 제작한 도구는 확장된 표현형에 해당한다. 도구가 다시 특정 유전자의 복제 확률을 높여 원시 인류의 두뇌가 점차 커지는 방향으로 진화가 이루어져 왔다고 이해할 수 있는 것이다. 한편 디사나야케에 의하면 사냥을 위한 도구를 만드는 일상적 활동과 달리, 도구에 무늬를 넣거나 주술적 목적으로 특정 도구를 제작하는 등의 활동은 '특별하게 만들기'에 해당한다.

[정답풀이] 디사나야케에 의하면 사냥을 위한 도구 제작은 생존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는 일상적 활동일 뿐 '특별하게 만들기'의 일환은 아니다. '특별하게 만들기'는 생존의 직접적 기술이 아니라 생존을 강화시켜 주는 기술이다.

[오답풀이] ① 도킨스에 의하면 확장된 표현형은 개체가 개체의 외부에 만들어 낸 인공물이나 산물이므로, 원시 인류가 만든 도구 역시 확장된 표현형으로 이해될 수 있다. 이러한 확장된 표현형은 자연 선택의 속도를 더 높일 수 있다. ② 도킨스에 의하면 원시 인류가 만든 정교하고 발달된 도구들은 확장된 표현형으로, 특정 유전자의 복제 확률을 높여 두뇌의 크기가 증가되고 기능이 강화되는 방향으로 진화가 이루어지도록 하는 데에 기여했다고 할 수 있다. ④ 디사나야케에 의하면 주술적 목적으로 제작한 주먹 도끼는 예술의 기원에 해당하는 '특별하게 만들기'의 하나로서 원시 인류의 생존을 강화시켜 주는 기술이라 할 수 있다. ⑤ 다윈의 진화론에 의하면 생존에 유리한 형질을 가진 개체들이 살아남아 세대를 거듭하는 것이 진화이다. 원시 인류의 두뇌가 점차 커진 것은 도구 제작에 유리하여 생존 확률이 높은 개체들이 살아남은 결과로 이해할 수 있다.

32. [출제의도] 문맥에 따라 적절하게 바꿔 쓰기를 할 수 있는가를 묻는 문제이다.

특정 DNA 서열이 다른 서열로 대체되는 것이 곧 진화나 도태인 것은 아니다. 이는 조합이나 경쟁이 유전자 단위에서 이루어질 수 있음을 보여 주는 표현일 뿐이다.

[오답풀이] ① 형질이 후대에 전해진다는 것은 도태되지 않고 살아남는다는 것을 뜻한다. ③ 생존 문제에 도움을 주는 산물을 만들어 내는 행동 양식은 곧 예술의 기원이라 할 수 있는 행동 양식을 뜻한다. ④ 돌도끼에 기하학적 문양을 새겨 넣는 것은 기하학적 문양을 형상화하는 것을 말한다. ⑤ 군무나 노래, 화장이나 '장식' 등의 행위의 산물은 '특별하게 만들기'의 산물이다.

[33～35] (현대소설) 유진오, '김 강사와 T 교수' (연계 지문 : 수능특강 154쪽)

33. [출제의도] 작품의 서술상 특징을 적절하게 파악할 수 있는가를 묻는 문제이다.

지문은 전지적 작가 시점에서, T 교수의 말과 행위에 반응하는 김만필의 내면에 서술의 초점을 맞추고 있다. 특히 H 과장을 찾아가라고 권하는 T 교수의 말에 대한 김만필의 내적 독백을 옮기는 부분('나쁜 놈들! 내가～무엇을 더 어떻게 하라는 것이냐.')에서는 그의 내면 심리가 생생하게 드러나고 있다.

[오답풀이] ① 내적 독백을 통해 김만필의 내면을 드러내는 부분은 있지만, 서술자의 교체는 나타나지 않았으며, 새로운 사건이 도입되고 있지도 않다. ② 시간이나 공간적 배경에 대한 묘사가 특별하게 드러나 있지 않다. 따라서 배경 묘사를 통해 사건의 전개 방향을 암시하고 있다고 판단할 수 없다.

34. [출제의도] 특정 인물을 중심으로 지문의 세부 내용을 적절하게 이해할 수 있는가를 묻는 문제이다.

T 교수는 '작년부터 조선말을 배우기 시작했'으며, 한글로 된 '언문 신문'에 실린 김만필의 논문을 조선 학생의 통역을 통해 읽었다고 말했다. 따라서 T 교수가 한글로 쓴 논문을 자유자재로 읽을 만큼 조선어에 능통하다고 판단할 수 없다.

[오답풀이] ①, ② 김만필의 일로 H 과장과 학교 교장 사이에 연락을 붙였다고 한 것이나, 김만필의 논문에 '탄복'하여 그가 S 전문학교에 취업할 수 있도록 자신이 힘을 썼다고 말하는 것에서 확인할 수 있다. 또한 T 교수는 자신이 교장과 고향이 같음을 밝히고 있는데, 이러한 말들은 모두 교내에서의 T 교수의 지위를 암시한다.

35. [출제의도] 외적 준거를 참고하여 작품을 적절하게 감상할 수 있는가를 묻는 문제이다.

'T 교수의 얼굴에다 마음속으로는 힘껏 침을 뱉어 주었다'에서 T 교수에 대한 김만필의 반감을 확인할 수 있다. 그렇지만 이러한 반감이, 김만필에게 좌익 활동을 한 과거를 고백하고 용서를 구하라고 한 말에서 온 것이라고 판단할 만한 근거는 찾을 수 없다. 표면적으로 T 교수는, 김만필에게 자신의 말대로 H 과장을 찾아가 인사를 하게 되면 S 전문학교에서 좀 더 안정된 지위를 가질 것이라고 조언을 했을 뿐이다(이는 실제로는 좌익 활동과 관련된 김만필의 과거를 환기하며 은근히 김만필을 압박하여 그의 행동을 조종하려는 것이라 볼 수 있다. 김만필은 그러한 T 교수의 속내를 눈치채고 반감을 느끼는 것이다.).

[오답풀이] ①, ② '제법 좌익 평론가인 체하'며 쓴 이념적 색채를 띤 논문을 '절대로 비밀에 붙여야' 하는 이유는, 만일 그것이 탄로가 나면 어렵사리 얻은 S 전문학교 강사 자리를 잃을 수도 있기 때문일 것이다. T 교수는 이를 알고, 이념적 색채를 띤 논문을 발표한 김만필의 과거 행적을 환기하고 있는 셈인데, 이 때문에 김만필은 T 교수의 미소 띤 표정에서 '눈에 보이지 않는 무서운 압박'을 느낀다. 이를 통해 사상의 자유가 억압된 일제 강점기의 사회상과, 이러한 사회상을 환기하며 주인공의 내면을 강박하는 상대방의 모습을 엿볼 수 있다. ③ T 교수는 자신이 일러 주는 대로 H 과장을 찾아가 인사를 한다면 S 전문학교에서 강의 시간을 더 많이 얻어 안정된 생활을 할 수 있을 것이라며 김만필을 부추긴다. 이런 T 교수의 말에 대해 김만필은 속으로 반감을 표하면서도 '불안한 마음에' T 교수가 말한 대로 H 과장을 찾아가기로 한다. 이처럼 김만필이 결국 T 교수가 일러 준 대로 행동을 한다는 점에서, T 교수는 안정된 생활에 대한 김만필의 욕망을 자극하는 인물이라 판단할 수 있다.

이 콘텐츠에 관한 저작권은 (주)이감에 있습니다.

[36～38] (고전소설) 박지원, '광문자전' (작가 연계 : 수능특강 292쪽)

36. [출제의도] 구절의 문맥적 의미를 적절하게 파악할 수 있는가를 묻는 문제이다.

광문이 '집주인'에게 거적을 얻은 까닭은 죽은 아이를 장사 지내기 위함이다. '떨어진 거적으로 시체를 싸서 가만히 짊어지고 가, 서쪽 교외 공동묘지에 묻'었다는 것에서 이를 확인할 수 있다.

[오답풀이] ④ '집주인'은 광문을 후히 대하였으며, '부자' 역시 광문을 칭송하였다. 따라서 두 인물의 태도가 상반된다고 할 수 없다. ⑤ 아이들이 상대를 놀릴 때 상대의 형이 광문이라고 하는 상황이므로, 광문의 위세를 빌리는 것이라고 할 수 없다. 문맥상 광문의 못생긴 외모를 들어 상대방을 놀리는 상황 정도로 이해하는 것이 적절할 것이다.

37. [출제의도] 외적 준거를 참고하여 작품의 특징을 적절하게 이해할 수 있는가를 묻는 문제이다.

'부자'가 말을 꺼내려다 그만두는 대목에는 '부자'의 행동이 상세하게 제시되어 있다. 이를 통해 광문을 의심하면서도 선뜻 말을 꺼내지 못하는 '부자'의 심리가 드러난다. 이처럼 장면을 구체적으로 제시하여 내면 심리를 묘사하는 수법은, '전' 양식이 조선 후기에 들어 변모한 양상을 보여 준다.

[오답풀이] ① 본래 '전'은 역사적 인물을 대상으로 삼아 그의 삶을 기술하는 산문 양식이다. 따라서 시정의 인물을 대상으로 삼는 것은 '전'의 전통에서 벗어난 것이다. ② 본래 '전'은 인물의 가계와 신원을 상세하게 밝힌다. 이러한 부분을 간략화하거나 생략하는 것은 '전'의 전통에서 벗어난 것이다. ④ 허름한 차림의 광문이 술자리에서 한바탕 놀고 여러 인물들과 친교를 맺는 것은, 호방하고 소탈하면서도 사람들과 벗하기를 좋아하는 그의 성품을 짐작하게 하는 일화이다. 그러나 <보기>에 따르면 인물의 행적을 객관적으로 기술하는 것은 '전'의 전통적 방식에 해당한다. ⑤ 본래 '전'은 글의 말미에서 해당 인물의 삶에 대한 평을 드러낸다. 따라서 이러한 평이 없는 것은 '전'의 전통에서 벗어난 것이다.

38. [출제의도] 외적 준거를 참고하여 작품을 적절하게 감상할 수 있는가를 묻는 문제이다.

'좌중'이 광문에게 춤을 청한 것은 아니다. '해진 옷'을 입고 '헝클어진 머리'를 한 채 나타난 광문을 보고 '좌중'은 실색하여 그를 쫓아내려 하였지만, 그 이전까지 춤을 추지 않고 있던 운심은 광문을 보고 그를 위하여 비로소 춤을 추기 시작하였다. 이를 통해, 기생과 같은 하층의 사람들이 (병든 거지 아이에게 그러했듯 하층의 사람들에게도 신의와 배려를 보이는) 광문에 대해 지녔던 호의를 짐작할 수 있다.

[오답풀이] ② 박지원이 광문의 명성을 실상에 비해 과도하다고 생각했다는 <보기>의 설명과 결부하여 볼 때, '부자'가 '지나칠 만큼 칭찬을' 했다는 표현은, 글쓴이가 광문의 명성을 실제에 비해 과도한 것으로 여기고 있음을 짐작하게 한다(실제로 박지원은 「광문자전」의 서문에서 '광문은 궁한 거지로서 명성이 실정보다 지나쳤다'라고 평하였다.). ④ <보기>에 연희 문화가 발달한 조선 후기의 사회상이 언급된 점을 고려할 때, 광문이 '만석희'라는 인형극과 '철괴무'라는 춤에 능했다는 것은, 그가 시정에서 연희(말과 동작으로 여러 사람 앞에서 재주를 부림.)를 선보이는 재주를 갖추고 있었음을 짐작하게 한다.

[39～42] (인문) 연계 지문 : 수능완성 252쪽, 수능특강 65쪽

39. [출제의도] 지문의 세부 정보들을 적절하게 파악할 수 있는가를 묻는 문제이다.

파핏에 따르면 도덕적 의무를 다하려는 욕구, 사랑하는 이의 이익을 증진하려는 욕구 등을 자기 이익에 대한 편향을 가진 욕구보다 덜 합리적이라거나 더 합리적이라고 말할 근거가 없다.

[오답풀이] ① 파핏은 도덕적 의무를 다하려는 욕구 등도 합리적인 욕구일 수 있다고 본다. ② '미래에 대한 편향'은 과거보다 현재나 미래의 만족이나 고통에 더 민감하게 반응하는 경향이다. ③ '자기 이익 이론'에 따르면 지문의 A에 대한 사례처럼 오랫동안 가져왔으나 지금은 잃어버린 욕구를 실현하는 행위가 합리적인 것일 수 있다. ⑤ '현재 목적 이론'은 도덕적 의무를 다하려는 욕구, 사랑하는 이의 이익을 증진하려는 욕구 등도 합리적인 욕구라고 본다. 그런데 이러한 욕구들은 타인의 욕구를 고려하는 욕구이다. 즉 '현재 목적 이론'은 타인의 욕구도 고려해야 한다는 '합리적 자비 이론'과 상충하지 않는다.

40. [출제의도] 지문에서 제기된 질문에 대해 특정 입장에서의 대답을 찾을 수 있는가를 묻는 문제이다.

파핏의 '현재 목적 이론'은 현재의 욕구나 현재의 목적을 가장 잘 실현하는 데에 기여하는 행위가 곧 합리적인 행위라고 본다.

[오답풀이] ① 파핏은 자기 이익을 최대화하려는 욕구를 비합리적인 욕구라고 보지 않는다. ② 파핏은 과거의 욕구에 관심을 두는 것을 합리적이라고 보지 않으며, 또 현재의 욕구가 과거 언제부터 갖게 되었는지가 욕구 실현의 비중에 영향을 미친다고 보지 않는다. ④ 파핏은 우리가 보통 '미래에 대한 편향'에 의해 과거의 욕구 실현보다 현재의 욕구 실현에 더 비중을 두며, 이것이 비합리적이라는 근거는 없다고 본다. 다만 모든 선택이 그러한 편향에 근거한 것은 아니며 편향에 근거하여 선택했는지의 여부로 합리적인 행위인지를 판단하는 것은 아니다. ⑤ 파핏은 과거에 가졌던 욕구의 실현보다 현재에 가지는 욕구의 실현에 더 큰 비중을 둔다. 하지만 어떤 행위가 합리적인 행위인지를 판단하기 위해서는 그 행위가 현재의 욕구를 얼마나 잘 실현하는지만 판단하면 된다.

41. [출제의도] 지문에 소개된 특정 입장의 핵심 주장을 적절하게 이해할 수 있는가를 묻는 문제이다.

'자기 이익 이론'에 따르면 '자신의 이익을 향한 모든 욕구'에는 현재의 욕구뿐만 아니라 과거와 미래의 욕구도 포함된다.

[오답풀이] ① '미래의 욕구를 실현하기 위해 노력할 이유'는 '행위를 해야 할 이유는 시간을 넘어 존재하며 힘을 가진다.'는 가정에 의해 현재에 무언가를 행할 이유이기도 하다. ② 미래에 가질 '이유를 지금도 가지는 셈'이라고 주장할 수 있는 것은 이유가 시간을 넘어 힘을 가진다는 가정 때문이다. ④ '자신의 이익을 향한 모든 욕구'에는 도덕적인 의무를 다하려는 욕구, 자기 이익과 무관한 어떤 목적을 성취하려는 욕구, 사랑하는 이의 이익을 증진시키려는 욕구 등은 포함되지 않는다. ⑤ '자기 이익 이론'은 인생 전체에서 행위자가 가지는, 자신의 이익을 향한 모든 욕구를 최대로 실현하는 데 기여하는 행위가 합리적인 행위라고 본다.

42. [출제의도] 특정 입장들에서 <보기>의 상황에 대해 적절하게 반응할 수 있는가를 묻는 문제이다.

[보기설명] '병'은 어제 5시간의 긴 수술을 받아 수술이 완료된 환자 X일 수도 있고, 어제 2시간의 수술을 받았고 오늘 1시간의 수술을 더 받아야 하는 환자 Y일 수도 있는 상황이다. '병'이 '미래에 대한 편향'을 가진다면 현재나 미래의 고통에 신경을 더 많이 쓸 것이고 과거의 고통에는 대체로 무관심할 것이므로, 자신이 X이기를 희망할 것이다.

[정답풀이] '자기 이익 이론'을 지지하는 이들은 사람들이 미래에 대한 편향을 가지지 않거나, 또는 가진다고 하더라고 그러한 편향은 비합리적인 것이라고 본다. 따라서 '병'이 미래에 대한 편향에 따라 Y보다 X를 더 희망할 수 있다는 점을 인정하지만, 그럴 경우 그 판단이 비합리적이라고 볼 것이다.

[오답풀이] ② '자기 이익 이론'을 지지하는 이들은 합리적인 판단을 위해서는 고통이 가해지는 시점을 고려할 필요가 없다고 본다. ③ '자기 이익 이론'을 지지하는 자들은 어제의 고통과 오늘의 고통을 똑같은 비중으로 고려해야 한다고 보지만, 파핏은 '미래에 대한 편향'을 합리적인 것으로 간주하므로 어제의 고통보다 오늘의 고통을 더 중하게 여겨야 한다고 볼 것이다. ④ 파핏은 '병'이 '미래에 대한 편향'을 가질 것이므로 앞으로 고통이 남아 있지 않은 X를 더 희망하는 경향을 나타낼 것이라고 볼 것이다. ⑤ 파핏에 따르면, '병'은 자신의 고통을 피하려는 욕구뿐만 아니라 자기 이익과 무관한 합리적인 욕구들을 가질 수 있다. 파핏은 가령 '병'이 사랑하는 이의 이익을 증진시키려는 욕구를 가지고 있고 X와 Y 중 한 사람은 자신이고 다른 사람은 자신이 사랑하는 사람인 상황에 있다면, '병'이 자신이 Y이고 사랑하는 이가 X이기를 희망할 것이라고 볼 것이다. 즉 자기 이익만을 고려하지 않고 여러 합리적인 욕구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할 경우에 '병'이 Y를 희망하는 일이 없을 것이라고 단정할 수는 없다.

[43～45] (현대시) 김소월, '삼수갑산' / 나희덕, '그 복숭아나무 곁으로' (작가 연계 : 수능특강 74쪽 / 연계 지문 : 수능특강 104쪽)

43. [출제의도] 작품의 표현상 특징과 그 효과를 적절하게 설명할 수 있는가를 묻는 문제이다.

(가)의 '내'에서 1인칭 화자인 '나'가 표면화되어 나타나는 것을 확인할 수 있다. (나)의 '나'에서도 표면화된 1인칭 화자를 확인할 수 있다.

44. [출제의도] 외적 준거를 참고하여 시행의 의미를 감상할 수 있는가를 묻는 문제이다.

(다)의 첫 문단에 따르면 현대시의 서정성은 자아의 좌절이나 내적 동요에서 촉발된다. 이를 참고하면, ㉡의 '새가 되면 떠가리라'는 새가 될 수 없는 한 고향에 갈 수 없다는, 즉 고향에 돌아가기 불가능한 상황에 대한 자아의 좌절을 드러낸 것이라 볼 수 있다. 세계와 합일을 이룰 수 있다는 희망을 함축하고 있는 시구가 아니다.

[오답풀이] ④ '피우고 싶은 꽃빛이 너무 많'다는 것은, 세계와 교섭하고자 하는 갈망의 간절함을 나타낸 것으로 볼 수 있다. 이어지는 시행에서 화자는 '그 나무'가 '외로웠을 것이지만 외로운 줄도 몰랐을 것'이라고 했다. 이는 '피우고 싶은 꽃빛이 너무 많은' 데서 초래된 '그 나무'의 내면을 추측한 것이다. 이 외로움은, (다)의 설명과 결부해 보면, 세계와 교섭하고자 하는 갈망이 충족되기 어려운 사정으로 인해 초래된 내적 동요를 나타낸 것으로 볼 수 있다. ⑤ '조금은 심심한 얼굴'은 '꽃잎'이 떨어져 버린 '복숭아나무'의 모습을 표현한 것이다. '피우고 싶은 꽃빛이 너무 많'았던 복숭아나무가, 그 꽃들이 다 떨어져 멀리로 흩어져 버린 상황을 맞이한 것이다. (다)를 참고하여 이를 이해하자면, 복숭아나무는 자신의 크나큰 갈망이 온전히 충족되기 어렵다는 것을 경험하게 된 상태이고, 이를 수용한 내면이 '조금은 심심한 얼굴'로 표현된 것이라고 해석할 수 있다.

45. [출제의도] 외적 준거를 바탕으로 작품을 적절하게 이해할 수 있는가를 묻는 문제이다.

(나)의 화자가 '수천의 빛깔이 있'음을 알게 된 것은 '그 나무'에 다가가면서가 아니라 '그 나무'와 '멀리' 떨어진 상황에서이다. 또한 '수천의 빛깔'이란 수많은 갈망을 의미하므로, 이것을 알게 된 것에 대해 대상과의 간극을 극복하는 과정에서 내적 동요를 겪는 것이라고 말할 수는 없다. (다)에서 설명한 내적 동요는 갈망에서가 아니라 갈망이 충족되기 어렵다는 인식에서 촉발되는 것이다.

[오답풀이] ⑤ '그 여러 겹의 마음'은 '그 나무'가 피운 꽃의 여러 가지 '빛깔'을 표현하는 것으로, (다)를 참고할 때 이 '여러 겹의 마음을 읽는' 행위의 주체는 성찰적 자아라고 할 수 있으며, 그것을 읽는 데 '참 오래 걸렸'다는 것은 세계와의 교섭을 갈망하는 자아를 성찰적 자아가 이해해 가는 과정이 지난했음을 의미한다고 볼 수 있다. 낭만적 서정은 이처럼 서정적 자아가 분열을 극복하고 대상과 합일되어 가는 과정에서 나타난다.

이 콘텐츠에 관한 저작권은 (주)이감에 있습니다.